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6. 2. 12.(목) 07:00 ~ 22:00
- 상담건수: 731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명절 자식 싸움을 막아라 유언 잘 남기는 법’

-방송일시 : 2026. 2. 12.(목) 1TV (10:00-11:10)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정리 중인데, 이날 방송 주제가 유언 잘 남기는 법이었다. 본인 또한 유언장을 어떻게 쓸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한 번 더 시청할 생각이다. 꼭 필요한 정보이다.

○ 방송 제언(1명)

-프로그램명 : 「Classic FM」

-방송일시 : 1FM

해당 채널에는 광고가 없으니 본인을 포함해 24시간 1FM을 틀어두는 청취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 본인처럼 음악을 즐기기 위한 청취자들에게는 스트레스이다. 타인의 개인적인 사연을 들어서 도움 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클래식 채널에서 왜 자꾸 사연을 소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잡다한 사연은 소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3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290	19	-	-	422	73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71	282	12	-	-	66	73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83	648	-	73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35	5	38	53	731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모킹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송 요청 ○ 「KBS 뉴스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방 제언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일요진단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소재) 추천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Classic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과’ 연락처 문의 42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내장 모듬’ 연락처 문의 21건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20건 ○ 「인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4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시간’ 문의 10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4건 ○ 「주파수」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1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주차」 문의 2건 외 6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53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재방송 요청	<p>○ 「스모킹 건」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2. 10.(화) 2TV (21:45-22:45) - 드라마와 달리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시청하다 보면 깨닫는 바가 있다. 그래서 본방송으로 시청한 후 재방송으로 다시 시청하는데, 요즘 재방송 편성이 없다.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결방 제언	<p>○ 「KBS 뉴스타임」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2. 12.(목) 2TV (15:00-15:15) - 3시에 해당 뉴스를 시청하려고 했는데 왜 방송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규 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진행자 호평	<p>○ 「KBS 뉴스 12」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 2. 12.(목) 1TV (12:00-13:00) - 류호성·장수연 앵커의 진행을 칭찬하고 싶다. 워낙 진행을 맡은지 오래되었고, 중저음의 목소리와 간결한 멘트가 듣기 좋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 「Classic FM」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 해당 채널에는 광고가 없으니 본인을 포함해 24시간 1FM을 틀어두는 청취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 본인처럼 음악을 즐기기 위한 청취자들에게는 스트레스이다. 타인의 개인적인 사연을 들어서 도움 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클래식 채널에서 왜 자꾸 사연을 소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잡다한 사연은 소개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